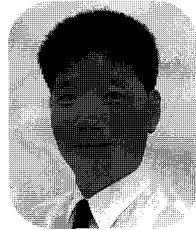




8월 지육시세는 2,70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올해도 어김없이 6월 4주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돈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추세는 지구의 북반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 선진국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 되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의 감소, 즉 출하두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양돈의 특성상 하절기에 나타나는 번식성적의 저하, 특히 여름철 발정지연 모돈의 증가와 수태율 하락, 그리고 7월과 8월의 교배 모돈이 분만하는 11월과 12월의 생산 자돈수의 감소와 6개월 후의 출하두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돼지가격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양돈 농가들의 사육기술 향상과 더운 환경에 대한 극복이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7월과 8월이다.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후보돈을 확보하여 번식성적이 저하하는 것을 감안하여 감소분 만큼을 추가로 교배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금년 6월 넷째 주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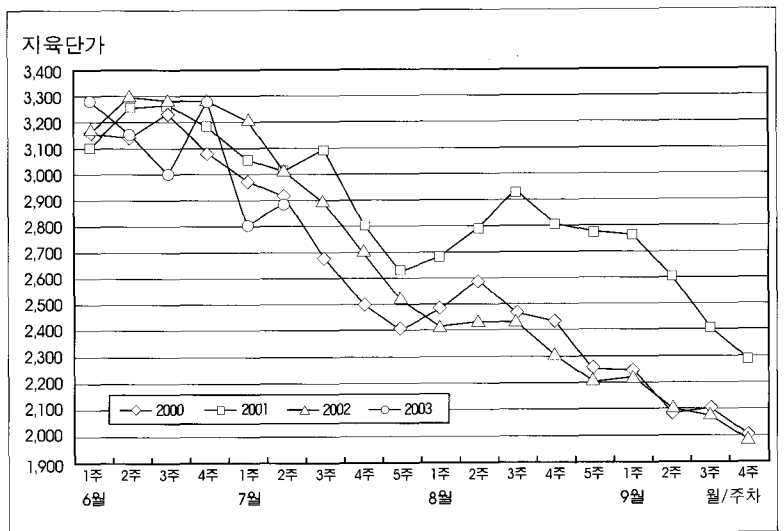
3,264원을 최고점으로 하여 가격의 하락기로 접어 들고 있다.

금년에는 최근 3개년간의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그림 2)를 참조해 볼 때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생산 자돈수가 줄어들면서 자돈사료의 증가 추세가 4개월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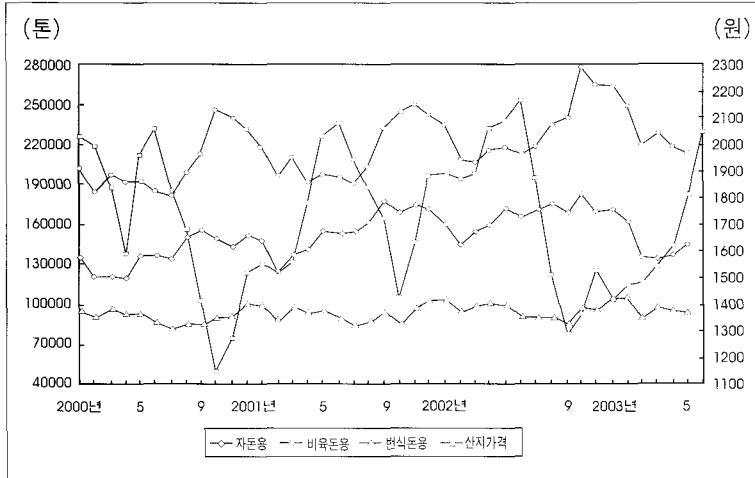
주춤거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여러가지 질병의 발생과 돈가의 하락 기간이 매우 길어지면서 결국 자돈수의 감소와 가을철 출하두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략 전년동기 대비 5~10% 정도의 자돈 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급격한 돈가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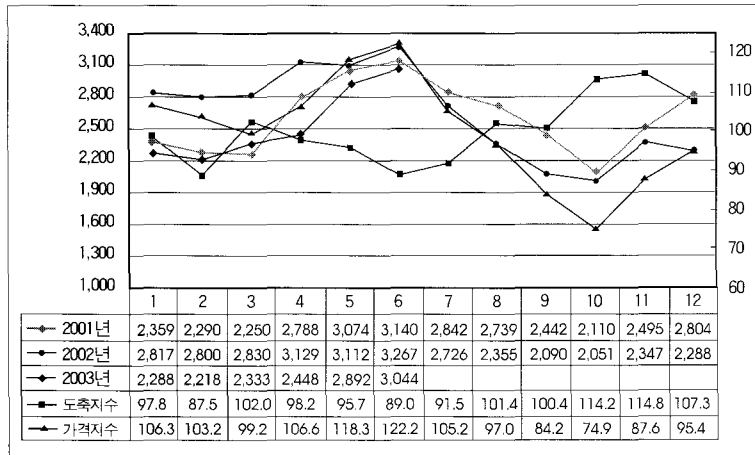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성이 커지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여러 질병과 이에 따른 비육돈의 성장지연으로 인한 출하두수가 감소하여 공급 측면에서는 전년 6월 대비 금년 6월의 출하두수는 약 11%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길게는 4~5개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국가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보다는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은 여름 휴가철에 서울 도매시장의 경우 도심의 휴가철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면서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기도 하여 평균 값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에는 9월 초순에 추석명절이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 폭이 예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육의 발골 및 정형 후 유통을 담당하는 1차 육가공 업체들이 전후지 가격의 폭락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하여, 육가공업체의 경영난과 작업두수 감축으로 발생하는 수요의 감소가 돈가의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성장지연과 폐사두수 증가에 따른 사료 생산량의 감소와 출하두수 감소 추세 지속이 예상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소비량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하락이 예상되지만 추석이 9월 초순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평균 지육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전국 주요 11개 도매 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는 2,7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